

성인의 아동에 대한 모방이 아동의 친사회적 도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진희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는 모방이 친밀감과 라포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움 행동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아동 관계에서도 모방이 친밀감과 라포 형성을 통해 친사회적 도움 행동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친밀도에 의거한 호의적 도움 행동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도덕 발달 단계 상 착한 소년·소녀 지향, 친권위적 태도를 지니는 9~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달리 모방 조건보다 비모방 조건의 피험 아동들이 성인 실험자에 대해 유의미하게 높은 친밀감 상승을 보고하였다. 기부 행동에 있어서도 비모방 조건의 피험 아동들이 모방 조건보다 더 많은 기부 행동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도움 행동 단서와 사회적 압력을 최소화한 상황에서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방 조건에서 도움 행동의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주로 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확인해 온 모방의 사회적 효과를 아동 피험자를 대상으로 검토해 보고 성인과의 구별되는 아동 피험자들의 반응을 확인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성인들이 일상에서 아동의 친사회적/친권위적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불수의적·자동적 모방, 라포, 친사회적/친권위적 도움행동, 사회적 압력

모방(imitation)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모방을 단순히 행동을 되풀이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성(intentionality)과 목적성(purposiveness)에 대

한 함축적 의미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곤 한다. Zentall과 Akins(2001)에 따르면, 만약 어떤 아이가 어른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아

* 교신저자: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모델(model 혹은 demonstrator)의 행위 사이의 관계, 즉 자신의 행동과 어른의 행동이 일치된다는 것을 이해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처럼 엄밀한 의미의 모방을 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에게서도 관찰되는 단순한 형태의 모사 능력(copying ability)과 구분하기 위해서 '진정한 모방(true imi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이와 구분되어 보다 단순한 수준에서의 모사(mimicry, copying)는 이미 자신의 평범한 레퍼토리의 한 부분인 행동을 단순히 반복해 내는 능력을 뜻한다(Billard, 2002). 즉 모방이라는 말은 광의로 해석되었을 때에는 관찰(observation)과 실행(execution)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수준의 모사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학술적으로는 고차원적 수준의 모방 능력을 지칭하는 진정한 모방(true imitation)의 의미로 국한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상기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단순한 불수의적(involuntary), 무의식적(nonconscious), 자동적 모방(automatic mimicry) 행위가 인간에게 있어 매우 강력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저차원적 수준으로 구분되던 모방 행동의 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새로이 활성화되고 있다. Chartrand와 Bargh(1999)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의 자세나 표정을 따라하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불수의적이고 무의식적인 모방 행동을 Chartrand와 Bargh(1999)는 자동적 모방 혹은 카멜레온 효과(the chameleon effect)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현상은 흔히 모방의 모델 역시 상대가 자신을 따라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미미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롱의

목적은 갖고 행해져 경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방 행위와는 구분된다. 오히려 자동적 모방 혹은 카멜레온 효과는 어떠한 의도성도 포함하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ecety & Chaminade, 2003; Lakin & Chartrand, 2003). Chartrand와 Bargh(1999)는 일부 실험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피험자를 모방했을 때,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방한 실험자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보고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van Baaren, Holland, Steenaert와 van Knippenberg(2003)는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주문을 할 때 고객과 언어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반응한 종업원이 그렇지 않은 종업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액수의 팁을 받거나 더 높은 확률로 팁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는 모방 조건 피험자들이 광고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동안 자세와 몸의 방향, 팔다리의 위치 등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처치 후 피험자 옆을 지나면서 6개의 펜을 떨어뜨리자 모방 조건의 피험자들이 비모방 조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펜을 주워주었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실험 참가의 대가로 50센트 동전을 4개 주고, 봉사 기구에 기부할 것을 제안했을 때 역시 모방 조건 피험자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액수와 비율로 기부 행위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모방이 자신을 모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전반적 타인(other people in general)에 대한 친사회적(pro-social) 행동 경향을 높이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이루어진 Ashton-James, van Baaren, Chartrand와 Decety(2007)의 연구에서는

Aron, Aron과 Smollan(1992)이 고안한 IOS 수정 척도(modified Inclusion of the other in the self scale: 부록 참조)를 사용하여 친밀감과 인지적 상호존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모방 조건 피험자들이 비모방 조건 피험자들에 비해 전반적 타인에 대해 더 가깝게 느낀다고 보고하여 모방이 대인 관계에서 친밀감(closeness)을 증진시킨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불수의적, 자동적 모방 행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이 밝혀지고 그 중요성이 새로이 조명되고 있는 한편, 인간의 발달에서 광의의 모방(imitation) 행위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이미 여러 발달 심리학 문헌에서 등장해 왔다. 일찍부터 모방은 인지적 기능과 함께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Uzgiris 1981, 1999; Nadel & Butterworth, 1999; Nadel, Revel, Andry, & Gaussier, 2004), 특히 생애 초기부터 타인과의 접촉과 사회적 친밀성을 유지하는 기능(Uzgiris, 1981, 1999)을 지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Killen과 Uzgiris(1981)에 따르면 모방은 초기 발달 단계에서부터 영아가 대인관계의 접촉을 형성하고 공유된 경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아와 타자 사이에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Shaffer(1999)는 신생아가 보여주는 짝을 이루는 반응(matching behavior)이 양육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유아와 돌보는 사람간의 상호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하여 광의의 모방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Meltzoff(1990)의 연구에서 영아들은 자신을 모방하는 성인을 더 오래 응시하고 그를 향해서 더 많이 웃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성인들이 모방의 사회적 기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의식적으로 흔히 모방이라는 기법

을 통하여 말 못하는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간주관성을 구축하곤 한다(Meltzoff & Decety, 2003). 그러므로 Gallese(2003)는 영아들이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나 자기 인식적 주체의 형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다른 개체들과 '우리-중심 공간(we-centric space)'을 공유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이 여러 발달 심리학자들이 영아-부모 간 의사소통에서 모방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을 문헌을 통해 논의하였고, 성인-성인 간 관계에 대해서 역시 실증적인 실험 연구를 통해 모방이 지니는 라포 형성 효과가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방이 학령기 아동의 발달 과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의 실험 절차를 도입하여 9~11세 아동에 대한 성인 실험자의 모방이 아동의 응답 양상과 도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실시되었다.

인습적 도덕 발달 단계 아동의 친사회적/친권위적 도움 행동과 성인의 권위 속성에 대한 판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방을 통한 호감과 친밀감(closeness), 라포, 사회적 의사소통의 증진이 친사회적 도움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의 주장이다. 이는 일찍이 Mussen과 Eisenberg-Berg(1977)가 사람들이 보통 도움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의 특징을 고려하며,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이와 동일한 경향이 아동 대상의 초기 연구에서도 주장된 바 있는데,

Staub와 Sherk(1970)는 아동이 얼마나 많은 도움 행동을 보이는가의 문제는 잠재적인 수혜인과의 친밀도 내지 사회적 관계 함수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후 McGillicuddy-De Lisi, Watkins와 Vinchur (1994)의 보고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relationship)의 효과가 정의 추론에 관여되는 중요한 상황적 맥락 중 하나가 된다. 유치원, 3학년, 6학년 아동들에게 기능 박람회에서 팔릴 미술 작품을 만든 아이들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9달러의 돈을 배분하도록 하였을 때,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낯선 이에게는 생산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친구에게는 생산성이나 가난함 등 변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호의적인 태도로 자원을 배분하였다. 이 연구는 성인들이 낯선 이에게 생산성의 기준을, 대학 룸메이트에게 생산성을 무시한 동일한 호의적 배분 기준을 적용 하는 경향(Austin, 1980)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이미 성인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더 호의적인 공평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도움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방이 호감과 친밀감, 라포와 사회적 의사소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성인-아동 간 모방의 결과가 성인-성인 모방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은 고학년 아동의 친사회적 도움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친밀도와 호감의 함수로 친사회적 도움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중·후기 아동기와 성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9~11세 아동이 도덕 발달 단계 상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의 특징과 아동들이 전통적으로 복종적 위치를 취한다(Subbotsky, 1994)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이들의 이타적 행동은 성인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우선 전인습 ⇨ 인습 ⇨ 탈인습 ⇨ 사회계약 지향 ⇨ 보편적 원리 지향으로 이어지는 Piaget(1932)의 도덕 발달 단계 상에서 성인들이 대체로 탈인습 이후 단계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9~11세 아동은 전인습, 혹은 인습 수준에 머물러 있기 쉽다. 한편 Kohlberg(1969, 1984)에 따르면 연령이 어릴수록 처벌과 복종 지향 및 쾌락주의 지향이 우세하고 10세경에 이르면 착한 아이 지향과 법과 질서 지향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된다. 10세 전후로 도달하게 되는 Piaget의 인습적 수준 초기 단계에 맞물리는 Kohlberg의 3번째 도덕 발달 단계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아동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approval)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고 착한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인습적 수준 후기 단계와 맞물리는 Kohlberg 도덕 발달 4번째 단계에서는 법과 질서의 권위 및 책임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을 절대 의무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권위와 사회 질서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아동기 도덕 발달의 과정을 살펴볼 때 중·후기 아동기에 위치한 피험자들에게는 이들 자신의 친권위적(pro-authority) 특성이나 사회적 압력과 같은 상황 요인이 이타적·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Rigby(1987)는 평균 12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평정과 권위에 대한 태도·행동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이때 친권위적 태도와 행동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드러내 후기 아동기까지도 성인이나 교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행동이 긍정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친권위적 속성과 관련해 Piaget(1932)와

Kohlberg(1969)는 아동이 성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미분화된(undifferentiated) 권위 개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에서는 아이들이 상황적 특성 내지 권위 있는 인물의 속성을 고려하는 분화된(differentiated) 관점에 따라 성인 실험자를 권위의 정당성이 더 적은 인물로 판단하기도 한다(Braine, Pomerantz, Lorber & Krantz, 1991; Laupa, 1991; Laupa & Turiel, 1993)는 것이 드러났다. Subbotsky(1994)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복종적 위치에 처해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인의 무과실성(infallibility)’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어른이 매우 쉬운 과제를 틀리게 수행했을 경우에도 잘못된 과제 수행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에 투입된 또 다른 성인 실험자가 학생 역할을 수행할 때 아동들은 그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과제를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이들이 분화된 관점에 따라 권위적 속성이 많은 성인에 대해서는 친권위적 태도와 일치성(conformity)을, 권위적 속성이 적은 성인에 대해서는 친권위적 태도나 일치성 경향을 감소시키고 독립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 사례이다.

상기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가 주장하는 모방의 친밀감·라포 증진 효과가 친밀도에 따라 호의적 도움 행동을 보이는 중·후기 아동기 피험자, 특히 연령이 높은 고학년 아동의 친사회적 도움 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 착한 소년·소녀 지향, 친권위적 태도가 강한 10세 전후의 연령에 해당하므로 모방의 처치 이전에도 이미 기본적으로

성인의 권위에 반응하여 친권위적 도움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성인에 대한 친권위적 도움 행동의 동기가 강한 이들에 대해서는 모방의 처치를 해준 집단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된 도움 행동의 결과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오히려 Subbotsky(1994)의 연구에서 학생 역할을 했던 실험자처럼, 본 연구의 성인 실험자가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는 역할이 아니라 아동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나아가 아동의 행동을 따라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아동 피험자들이 그의 권위적 속성을 낮게 평가한 결과, 권위적 존재의 인정을 받기 위한 친권위적 도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기분 상태에 의거(Moore, Underwood, & Rosenhan, 1973; Rosenhan, Underwood, & Moore, 1974)하거나 독립적인 판단에 의거한 도움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Russon과 Waite(1991)에 따르면, 아동과 영장류들은 보다 지배적인 위치의 모델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Strayer, 1981; Walters and Seyfarth, 1987). 또한 모방은 사회적으로 비위를 맞추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위치의 개인으로부터 관용, 수용, 혹은 권력(power)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Nadel, 1986; Walters, & Seyfarth, 1987). 때문에 성인 실험자가 아동 피험자를 모방하는 행위는 권위의 소재(所在)를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성인에서 아동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이며, 성인의 권위를 낮추고 피험 아동들이 지닌 권위에 대한 일치성(conformity)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행동 단서와 반복 질문에 의한 사회적 압력

10~12세 아동들이 그보다 어린 아동들에 비해 더 많은 기부 행위를 한다는 연구 결과들에 따라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은 아동기동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타적 행동도 늘어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Gelfand & Hartmann, 1980; Underwood & Moore, 1982). 그러나 아동의 기부 행동에서 드러난 이러한 연령 차이는 상황적 지시가 명확했을 때 최소화되거나 사라져 모든 아동들이 분명하게 제공된 지시에는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Grusec, Kuczynski, Rushton, & Simutis, 1978; Israel & Brown, 1979). 또한 Zarbatany, Hartmann과 Gelfand(1985)가 1, 3,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암묵적 혹은 명시적 기부 단서(implicit or explicit donation cues)의 역할을 조사한 연구에서 피험 아동들은 명시적으로 도움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일수록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이타적 행동을 보였다. 이때 연령이 높은 아동들은 실험자의 기대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드러나고 도움 행동에 대한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만 어린 아동들에 비해 더 많은 이타적 행동을 보였다. 요구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1, 3, 5학년 학생들의 도움 행동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명시적 도움 행동 단서가 모든 연령의 아동들에게 친사회적/친권위적 태도와 일치성(conformity)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연령의 증가가 암묵적 도움 행동 단서에 대한 민감성(susceptibility)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주로 사회적 압력이 증가된 상황 속에서 다른 연령 집단 아이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Zarbatany, Hartmann, & Gelfand, 1985). 상기의 연구는 연령이 높은 아동의 증가된 도움 행동에 사회적 압력의 증가와 같은 상황적 요인의 특성이 영

향을 미친다는 Hampson(1981)의 생각에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도움 행동이나 일치성에 관한 연구 외에 아동 인터뷰에 관한 연구에서도 성인의 권위 속성이나 인터뷰 장소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아이들이 성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양상의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많은 연구에서 아동들이 정확한 기억을 유지함(Rudy & Goodman, 1991)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Ceci, Ross, & Toglia, 1987; Loftus & Palmer, 1974), 사무실과 같은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정장을 입은 성인이 인터뷰를 한 아동들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장소와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한 아동들에 비해 반복된 질문에 더 많이 자신의 대답을 바꾸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Ricci, Pacifico, & Katz, 1997; Bull & Corran, 2002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인터뷰 상황에서의 반복 질문(repeated question)은 특히 성인보다 아동 피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같은 질문의 반복은 아동 피험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추측하도록 만들고 사회적 압력에 반응하여 왜곡된 답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인터뷰 상황이 권위적일수록 심하게 드러난다(Memon, & Vartoukian, 1996)는 점이다. 즉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성인이나 인터뷰 상황을 권위적이라고 느낄수록 높은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상대가 원하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과 성인 간에 도덕적 추론 특성의 차이와 권위에 반응하는 특성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모방의 사회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이에 본 연구는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가 주장한 모방의 친밀감·라포

증진 효과가 성인-아동 관계에서도 친사회적 도움 행동의 결과로 드러날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 연구 문제들을 다루었다.

1. 아동 행동에 대한 상대방(어른)의 모방/비모방 행동에 따라 상대방과 전반적 타인에 대해 친밀도를 보고하는 아동의 반복 응답(전/후)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2. 아동 행동에 대한 상대방(어른)의 모방/비모방 행동에 따라 상대방이 떨어뜨린 펜을 주워주는 아동의 도움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3. 아동 행동에 대한 상대방(어른)의 모방/비모방 행동에 따라 상대방이 제안하는 기부 행위에 따르는 아동의 도움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3, 4학년 학생 49명(여아 24명, 남아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49명의 피험 아동 가운데 과제 실시를 거부한 아동 1명과 문항에 답하지 않는 등 참가의 동기가 현저히 낮은 2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46명의 실험 결과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9세 9개월(여아 평균 만 10세 4개월, 남아 평균 만 9세 8개월)이며, 최소 연령 만 9세 1개월, 최고 연령 만 10세 9개월이다. 총 46명의 피험 아동들은 모방 조건에 23명(여아 12명, 남아 11명), 비모방 조건에 23명(여아 12명, 남아 11명)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평균 연령은 모방 조건과 비모방 조건 모두 만 9세 9개월이었다.

대상을 만 9~11세로 제한한 것은 착한 소년·소녀 지향과, 법과 질서의 권위 및 책임을 존중하

는 특성을 보이며 인습적 도덕 발달 단계에 위치한 이들 9~11세 아동 피험자들이 연령적으로도 중·후기 아동기에 해당하여 실험자의 권위적 속성이나 사회적 압력과 같은 상황적 요인의 변화에 상당한 민감도를 갖고 친사회적/친권위적 태도에서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 절차에 포함되는 IOS 수정 척도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이 약 만 9세 정도이며, 그 이상 연령의 경우 실험에 포함되는 동작 과제에 대한 흥미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는 초등 교사 2인의 경험적 판단도 반영하였다.

연구 도구 및 과제

IOS 수정 척도(Modified Inclusion of the Other in the Self Scale: 부록 참조).

두 원 사이의 거리로 대인 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그림 검사로(Aron, Aron, & Smollan, 1992), Ashton-James, van Baaren, Chartrand와 Decety(2007)가 모방을 통한 친밀감의 증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두 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경우 1점, 가장 가까운 경우 6점으로 점수화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친밀도를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언어 과제. Chartrand와 Bargh(1999)의 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A4 용지 14매에 각각 1장의 컬러 사진을 붙여 차례로 제시하면서 사진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하였다. 파일럿 실험 결과 각 아동 간에 언어 과제 수행 시간의 편차가 크고, 전반적으로 5분을 경과하면 주의력과 흥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5분이 경과할 때까지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동작과제로 넘어갔다.

반면 너무 짧은 시간에 과제를 끝내버리는 아동

을 위하여 Chartrand와 Bargh(1999)의 연구에서 12장의 사진을 이용한 것과 달리 14장의 사진을 준비하였다. 사진의 내용은 선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여아 혹은 남아, 긍정 혹은 부정적 정서 자극, 구체적 혹은 모호한 자극을 비슷한 비율로 포함시켰다.

동작 과제. Chartrand & Bargh(1999)의 실험과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 (2004)의 실험에서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언어 과제만이 사용된 것과 비교해 본 실험에는 동작 과제가 추가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언어 과제 동안 실험자가 피험자를 언어적으로 모방하는 것 외에 제스처까지 모방하였으나, 파일럿 실험 결과 아동의 제스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므로 동작 과제를 추가하였다.

동작 과제는 A4 용지 17매에 장당 1가지씩 총 17가지 체육 활동의 이름을 한글 112 포인트로 인쇄하여 차례로 제시하며 해당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배열순서는 발을 주로 이용하여 하는 운동과 팔을 주로 이용하여 하는 운동이 번갈아 등장하도록 배치하여 비모방 조건에서 모방의 효과가 유도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e.g. 발야구 ⇨ 수영 ⇨ 제기차기 ⇨ 배드민턴 순서)

기분 척도. 좋다-나쁘다, 행복하다-우울하다, 기쁘다-슬프다 3가지 항목을 각각 7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고(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 2004),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때 아동 피험자들이 과제에 보다 친숙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는 표정으로부터 웃는 표정까지 변화하는 얼굴 그림을 제시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타. 1) 지우개: 각 피험 아동에게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동물 모양 지우개 4개씩을 주었다. 2) 기부 상자: 30cm×18cm×13cm 크기의 속이 보이지 않는 하얀 상자로 윗면에 지우개가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뚫려있다. 3) 펜: 펜 6개를 준비했다.

실험 절차

실험은 7~8평 이상의 독립된 공간에서 피험 아동과 1:1로 마주보고 진행되었다. 아동이 실험실로 들어오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과제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IOS 수정 척도. 가장 먼저 IOS 수정 척도를 두 번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첫 번째는 오늘 처음 본 다른 사람과 자신이 친한 정도를, 두 번째는 실험자와 자신이 친한 정도를 고르라고 지시하였다(부록 참조). 지시 후 실험자는 아동이 척도를 작성한 후 속이 보이지 않는 기부 상자 속에 넣고 완성했음을 알릴 때까지 뒤돌아 다음 과제를 준비하였다.

언어 과제와 동작 과제. 실험에서 각 아동은 언어 과제와 동작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다. 모방 조건에서 실험자는 언어 과제와 동작 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아동을 언어적, 행동적으로 모방했다. 언어 과제의 실시 동안 아동이 한 설명을 실험자가 한 번씩 되풀이하여 말해 주었고(e.g. ‘고양이가 아저씨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 ‘고양이가 아저씨 머리를 만지고 있구나’), 동작 과제의 실시 동안 아동이 하는 동작을 마주보고 있는 실험자가 자연스럽게 따라하였다. 동일한 쪽 신체를 움직이는 자세의 거울 반사(posture mirroring: 오른쪽 팔을 올렸을 때 맞은 편 사람이 거울상처럼 왼쪽 팔을 올림)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모방이 라포와 관련된다는 La

France와 Broadbent(1976)의 연구를 고려했다.

한편 비모방 조건에서 실험자는 과제 실시 동안 아동과 다른 어휘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동과 다른 신체 부위를 움직였다. 언어 과제의 경우 아동이 말을 잠시 멈출 때 실험자는 ‘그래’, ‘그렇구나’ 등의 말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말을 이해했음을 표시했다. 또한 비모방 조건의 동작 과제에서 실험자와 아동은 스포츠 이름에 대한 행동 묘사를 한 장씩 번갈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험자는 발을 움직이는 동작만을, 아동은 팔을 움직이는 동작만을 하게 되도록 유도하였다.

기분 척도 작성. 언어·동작 과제 실시 후, 아동으로 하여금 기분 척도를 작성하고 A4 용지에 집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아동이 기분 척도를 완성하고 집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실험자는 아동의 1m 반경 내를 지나가며 6개의 펜을 떨어뜨리고 아동이 펜을 줍는지 확인하였다(Macrae & Johnston, 1998). 이때 실험자는 지우개가 20개 담긴 주머니가 올려져 있는 25cm×32cm 크기의 파일 3개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다. 그림 과제를 부여한 것은 파일럿 실험 결과 피험 아동들이 특별한 과제 없이 실험자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들이 지닌 친권위적 태도와 상황이 제공하는 압력으로 인해 모두들 펜을 줍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IOS 수정 척도의 반복 측정(부록 참조). 기분 척도 실시 후, 다시 한 번 오늘 처음 본 다른 사람 및 실험자에 대한 친밀도를 표시하는 IOS 수정 척도를 실시하였다.

명시적 기부 단서 제공. 아동 피험자에게 오늘의 과제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면서 동전 4개를 실험 참가의 대가로 지불하였던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의 연구 절차를 각색하여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면서 지우개 4개를 주었다. 그 다음 혹시라도 불우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받은 지우개 중에서 기부하고 싶은 만큼 상자에 넣어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실험자는 곧바로 일어나 아동의 행동을 볼 수 없는 위치로 가서 실험 도구를 정리하였다. 모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5~30분 사이였다.

결 과

동일한 피험자에게 IOS 수정 척도가 자기-전반적 타인, 자기-실험자 각각에 대해 사전, 사후 두 번씩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펜 줍기 행동의 분석은 χ^2 검증, 지우개 기부 행위 분석은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PC+ Version 12.0을 이용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표 1과 2는 모방과 비모방 조건에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때 1~4 변인들은, 각 피험 아동이 IOS 수정 척도를 총 4회(처치 이전 2회, 처치 이후 2회) 작성하여 얻어진 자기-타인 사전 친밀도, 자기-실험자 사전 친밀도, 자기-타인 사후 친밀도, 자기-실험자 사후 친밀도 점수이다.

상관관계의 양상을 살펴보면 모방 조건에서는 자기-타인과 자기-실험자 조건 모두에서 아동들이 보고한 사전과 사후 친밀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드러났고($r = .45, r = .89$), 자기-실험자 사전 친밀도와 자기-타인 사후 친밀도 사이에도 유의미한 상관($r = .51$)이 나타났다. 반면 비모방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전 사후 친밀

표 1. 모방 집단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23$)

	1	2	3	4	5	6	7
1. 자기-타인 사전 친밀도	1						
2. 자기-실험자 사전 친밀도	.27	1					
3. 자기-타인 사후 친밀도	.45*	.51*	1				
4. 자기-실험자 사후 친밀도	.06	.89**	.33	1			
5. 기분 척도 점수 평균	.43*	.21	-.14	.25	1		
6. 펜 주워주기 도움 행동	.34	.13	.17	.09	.16	1	
7. 기부한 지우개 개수	.30	.02	-.09	.17	.57**	.05	1

Note.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비모방 집단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23$)

	1	2	3	4	5	6	7
1. 자기-타인 사전 친밀도	1						
2. 자기-실험자 사전 친밀도	.03	1					
3. 자기-타인 사후 친밀도	.27	.23	1				
4. 자기-실험자 사후 친밀도	-.20	.63**	.05	1			
5. 기분 척도 점수 평균	-.03	.29	-.04	.21	1		
6. 펜 주워주기 도움 행동	.32	.45*	.19	.22	.08	1	
7. 기부한 지우개 개수	-.19	-.25	-.11	-.21	.11	-.04	1

Note. * $p < .05$, ** $p < .01$, *** $p < .001$

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실험자에 대한 사전 사후 친밀도 점수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63$)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값도 모방 집단에서 실험자에 대한 사전 사후 친밀도 사이에 드러난 상관($r = .8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였다. 또한 모방 집단에서는 실험 실시 초반에 측정된 자기-타인 사전 친밀도 점수와 중반에 측정된 기분 척도 점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r = .43$)이 나타난 반면, 비모방 집단에서는 자기-실험자 사전 친밀도 점수와 펜 주워주기 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r = .45$)이 나타났다. 모방과 비모방 조건 모두에서 기부한 지우개의 개수는 펜을 주워주는 행동이나 친밀도 점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단 모방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기부한 지우

개 개수와 기분 척도 점수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57$)이 관찰되었다.

IOS 수정 척도 점수의 분석

집단 간 기저선(baseline)의 차이 유무. 모방과 비모방 두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된 아동들이 실험 처치 이전에 타인에 대한 친밀도를 서로 다르게 보고하지 않는지 검토하기 위해 IOS 수정 척도 사전 점수 평균값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피험 아동들이 자기-타인 친밀도, 자기-실험자 친밀도 각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t = .295, p > .70$; $t = .386, p > .70$). 실험 처치 후 결과가 각 조건 아동들의 사

전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각 조건에서의 IOS 수정 척도 사전/사후 평균 점수. 표 3, 4를 통해 볼 때, 피험 아동들이 IOS 수정척도를 통해 보고한 친밀도는 대부분 그 평균값이 실험 처치의 사전보다 사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후 점수 가운데서도 특히 비모방 조건에서의 자기-실험자 사후 친밀도($m= 4.74$)가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유일하게 모방 집단의 자기-타인 사후 친밀도 점수는 자기-타인 사전 친밀도 점수보다 소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모방집단의 자기-타인 친밀도에 대한 사후 측정에서 가장 낮은 친밀도 평균($m= 3.04$)이 보고되었다. 친밀도의 사전 사후 점수 평균값의 차이를 구했을 때에도 비모방 집단의 자기-실험자 조건에서 가장 큰 양의 방향으로의 증가가 드러났고($D= 1.48$), 반면 모방 집단의 자기-타인 사전사후 친밀도 평균값의 차이는 유일하게 음의 방향으로 감소되는 양상($D= -0.57$)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대상의 선행 연구(Ashton-James, van Baaren, Chartrand & Decety, 2007)에서 모방이 IOS 수정 척도 점수의 증가를 가져왔던 것과 상이한 것이다.

IOS 수정 척도 점수의 반복측정 변량 분석 결과.

IOS 수정 척도 점수에 대해 반복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자기-타인 IOS 척도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점(Time)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F(1,44)=0.78, p>0.3$) 시점과 집단(Time×Group)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F(1,44)=2.00, p>0.1$). 이러한 결과는 피험 아동들이 집단 간 처치와 무관하게 사전과 사후에 비슷한 정도로 전반적인 타인에 대한 친밀도를 보고하였음을 뜻한다.

반면 자기-실험자 IOS 척도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점(Time)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1,44)=97.88, p=0.00$) 시점과 집단(Time×Group)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44)=5.47, p<0.05$). 이는 자기-실험자 관계에 대한 사전 사후 친밀도 보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결과가 모방과 비모방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뜻한다. 이때 그림 1을 살펴보면 IOS 수정 척도 점수의 상승폭이 비모방 조건에서 모방 조건 보다 크므로 비모방 집단 피험 아동들이 모방 집단 아동들에 비해 반복 질문에 반응하여 유의하게 높은 폭으로 사후 친밀감의 상승

표 3. IOS 수정 척도를 통해 보고된 자기-타인 친밀도

구분	자기-타인 사전 친밀도		자기-타인 사후 친밀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방	3.61	1.50	3.04	1.36
비모방	3.48	1.50	3.61	1.50

표 4. IOS 수정 척도를 통해 보고된 자기-실험자 친밀도

구분	자기-실험자 사전 친밀도		자기-실험자 사후 친밀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방	3.39	1.08	4.30	1.29
비모방	3.26	1.21	4.74	1.10

표 5. 모방 비모방 집단의 자기-타인 IOS 척도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집단	1	1.09	1.09	.37	.55
오차	44	128.52	2.92		
시점	1	1.09	1.09	.78	.38
시점×집단	1	2.78	2.78	2.00	.16
오차(시간)	44	61.13	1.39		

Note.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모방 비모방 집단의 자기-실험자 IOS 척도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집단	1	.53	.53	.22	.64
오차	44	106.44	2.42		
시점	1	32.88	32.88	97.87	.00***
시점×집단	1	1.84	1.84	5.47	.02*
오차(시간)	44	14.78	.34		

Note.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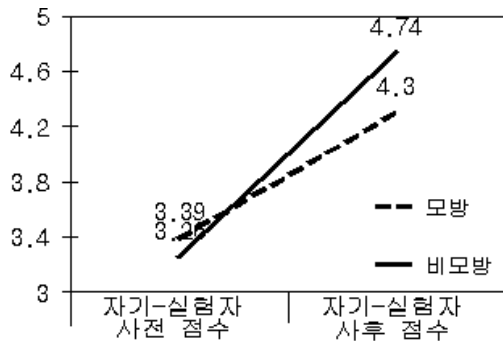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실험자 IOS 수정 척도 점수: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방이 IOS 수정 척도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성인 대상 선행 연구(Ashton-James, van Baaren, Chartrand & Decety, 2007)에서 모방 조건의 피험자들이 처치 후에 더 증가된 친밀감을 보고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에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절차의 실험에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펜 줍기 행동의 분석

표 7을 보면, 모방 조건에서 9명, 비모방 조건에서 2명의 아동이 실험자의 펜을 주워주는 행동을 보였으며 모방 조건에서 14명, 비모방 조건에서 21명인 나머지 아동들이 도움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처치 집단에 따른 차이는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df=2, \chi^2=7.07, p < .05$).

백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모방 조건의 39.1%($n=9$), 비모방 조건의 8.7%($n=2$)가 실험자의 펜을 주워주는 행동을 보였으며, 펜을 줍지 않은 피험 아동 가운데 모방 조건의 17.4%($n=4$), 비모방 조건의 43.5%($n=10$)가 펜이 떨어진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본 후 도움을 주지는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모방 조건의 43.5%($n=10$), 비모방 조건의 47.8%($n=11$)가 펜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과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전체 아

표 7. 처치 집단과 반응 유형 간의 교차 빈도 분포 단위: 명(%)

	도움	방관	무반응	Total	χ^2
모방	9 (39.1)	4 (17.4)	10 (43.5)	23	7.07*
비모방	2 (8.7)	10 (43.5)	11 (47.8)	23	
Total	11	14	21	46	

Note. * $p < .05$

표 8. 모방 비모방 집단의 기부한 지우개 개수의 평균 비교

	<i>N</i>	<i>M</i>	<i>SD</i>	<i>t</i>
모방 집단	23	1.17	.78	2.02*
비모방 집단	23	1.57	.50	

Note. * $p < .05$

동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5.7%가 무반응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무반응을 보인 피험 아동의 수는 비록 모방 조건에서 경미한 수준으로 낮았으나 그 수에 거의 차이가 없어 실험의 처치 효과는 주로 아동이 펜이 떨어진 것을 지각하거나 관심을 보였을 때 나타났다. 모방 조건과 비모방 조건에서 도움 내지 방관의 태도를 보이는 피험 아동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모방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방관의 태도가 줄고 도움 행동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7.07, p < .05$), 비슷한 성인 피험자 대상 연구에서 모방의 도움 행동을 증가시켰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지우개 기부 행동의 분석

모방과 비모방 조건에서 각 아동이 기부한 지우개 개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방 조건($m = 1.17$)보다 비모방 조건($m = 1.57$)에서 아동들이 유의미하게 많은 수의 지우개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t = -2.022, p <$

.05). 또한 모방 조건에서 총 4명의 아동이 지우개를 1개도 기부 하지 않아 모든 피험 아동이 1개 이상의 지우개를 기부한 비모방 조건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van Baaren, Holland, Kawakami, van Knippenberg, 2004)와 상반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방이 성인 피험자들의 기부 행위에 미치는 기부 행위 증진의 효과가 아동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절차의 실험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IOS 수정 척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인 결과와 역전된 방향의 모방의 효과가 나타나 모방 조건에서 기부 행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앞부분에서 논의되었던 바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아동들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논의 및 결론에서 추가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49명)을 대상으로 모방의 친밀감·라포 증진 효과가 성인-성인 상호작용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에서처럼 친사회적 도움 행동의 증가로 드러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피험 아동들은 IOS 수정 척도를 자기-전반적 타인, 자기-실험자 각각에 대해 사전, 사후 두 번씩 작성하였고 그 결과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펜을 주워주는 행동의 분석은 χ^2 검증을, 지우개 기부 행위는 t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각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에 대한 성인의 모방/비모방 행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 친밀도를 보고하는 아동의 반복 응답(전/후)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실험 처치 전후로 실시된 자기-실험자 친밀도 반복 측정 결과, 비모방 조건 아동들의 처치 후 점수가 모방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자기-타인 IOS 척도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는 시점의 효과,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존재하지 않았으나 자기-실험자 IOS 척도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는 시점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비모방 조건 피험 아동들이 모방 조건에 비해 반복 질문에 반응하여 유의하게 높은 폭으로 실험자에 대한 사후 친밀감의 상승을 보고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방이 IOS 수정 척도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성인 대상 선행 연구에서 모방 조건 피험자들이 비모방 조건보다 처치 후에 더 증가된 친밀감을 보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선행 연구와 달리 모방이 친밀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비모방에 비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는 친밀감과 또 다른 차원인 권위의 요소가 개입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 피험자들은 암시성(suggestibility)이 높은 특징을 지님에 따라, 권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할수록 사회적

압력에 압도되어 잘못된 유도에 저항하지 못하거나(Carter, Bottoms, & Levine, 1996) 반복 질문 등에 반응하여 적절한 답이라고 추측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는 경향(Moston, 1990)이 있다. 이는 아동에게서 현저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동 피험자들의 잠재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또한 아동이 반복 질문에 반응하여 대답을 바꾸는 경향은 상황을 권위적으로 느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Ricci, Pacifico, & Katz, 1997; Bull & Corran, 2002에서 재인용; Memon, & Vartoukia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동일 질문 반복(IOS 수정 척도의 반복 측정) 역시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 피험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압력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비모방 조건에서 모방 조건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큰 폭의 점수 상승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비모방 조건 피험 아동들이 본 실험 상황을 더욱 권위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반면에 모방 조건에서는 모방을 통한 실험자 권위의 감소 효과로 인하여 아동 피험자들의 IOS 수정 척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폭의 상승만을 가져왔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보다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 가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과연 모방이 아동에 대해서는 성인과 상반되게 오히려 친밀감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모방 조건에서의 친밀감 증가가 단지 모방이 갖는 권위의 감소 효과 때문에 발생한 표면적인 결과이며 실제로는 모방의 친밀감 증가 효과가 아동 피험자들에게서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아동에 대한 성인의 모방/비모방 행동에 따라 펜을 주워주는 아동의 도움 행동에 차이가 드러났고, 모방 조건의 아동들이 비모방 조건보다 유

의미하게 많이 펜을 쥘 결과를 보였다. 주의할 것은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상황적 혹은 사회적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 그림 그리기 과제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실험자들은 아동이 그림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도움 행동 단서에 대한 민감성과 사회적 압력을 최소화되고 순수하게 모방을 통한 친밀감과 라포 형성 여부가 도움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펜 떨어뜨리기 상황에서 실험자들의 이와 같은 의도가 충분히 실험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때 모방 조건 피험 아동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도움 행동 비율을 기록한 것은 모방이 가져오는 라포 형성의 효과가 아동에게서도 친사회적 도움 행동의 증가를 불러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조건마다 절반에 이르는 아동들이 과제에 집중하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각 범주당 피험 아동의 수가 조건별 비교에 충분치 못했던 측면이 있어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의 양상에 대해서도 제한적 해석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아동에 대한 성인 실험자의 모방/비모방 행동에 따라 실험자가 제안하는 기부 행위에 따르는 아동의 도움 행동에 차이가 있었고, 비모방 조건 아동들이 모방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기부 행위를 하였다. 이 역시 IOS 수정 척도의 반복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방이 비모방에 비해 아동 피험자들의 실험자에 대한 친밀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권위의 요소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아동 피험자들은 실험 상황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도움 행동을 요구받을수록 요구에 순응하여 더 많은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이 진정한 이타성의 증가가 아니라 기부 단서에 대한 민감성 때문임이 지적된 바 있다(Zarbatany, Hartmann과 Gelfand, 1985). 또한 높은 연령의 아

동들이 주로 사회적 압력이 증가된 상황 속에서 높은 수준의 도움 행동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령이 더 어린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된 도움 행동만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실험자-아동 피험자간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고 성인 실험자의 권위적 속성이 줄어들면 권위적 존재의 인정을 받기 위한 친권위적 도움 행동이 감소하게 되어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도움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실험자가 명확한 표현으로 지우개 기부를 제안함으로써 명시적인 기부 단서를 제공하였을 때 비모방 조건 아동들이 모방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기부 행동을 보인 것은 이들이 실험 상황에서 더 큰 사회적 압력을 느낀 결과일 수도 있다. 더욱이 상호 교환적 이득이 기대될 때 도움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특성(Peterson, 1980; Peterson, Hartmann & Gelfand, 1977) 익명의 수혜자에 대한 기부 행동 증가를 아동 스스로의 돕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이기 보다, 실험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 친권위적 태도로 해석할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아동은 주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때 증가된 도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 모방 조건 아동들만 이 경향과 일치하여 정서 상태와 기부 행동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관찰된 점도 모방 조건 아동들이 비모방 조건과 달리 권위나 상황적 압력과 같은 외적 요소보다 스스로의 내적인 기분 상태에 따라 독립적인 기부 행동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IOS 수정 척도 반복 측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를 통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정밀한 실험 절차의 고안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도덕 발달 단계상 착한 소년·소녀 지향, 친권위적 태도가 특징인 9~11세 아동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달리 모방 조건보다 비모방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친밀감의 상승을 보고하고 유의미하게 더 많은 기부 행동을 보였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방의 사회적 효과를 연구한 연구자들의 주장과 달리 아동에게 있어서는 모방이 오히려 친밀감을 낮추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모방이 성인 실험자와 실험 상황의 권위적 압력을 낮추는 경향으로 인해 드러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도움 행동 단서와 사회적 압력을 최소화하고자 그림 과제를 부여했던 펜 떨어뜨리기 절차에서만 모방 조건 아동들이 비모방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된 도움 행동을 보였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더욱 그 가능성이 뒷받침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본 연구만을 통해서만 완전히 밝힐 수 없었으므로 보다 정밀한 실험 절차의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방 조건에서 성인 실험자의 권위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났던 아동 피험자의 도움 행동 감소 경향이 모방이 불러오는 친사회적 도움 행동의 증가 경향을 완전히 상쇄시켰는지, 아니면 모방에 의해 증가된 친사회적 도움 행동의 경향이 모방 조건의 결과에 다소간 남아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hartrand와 Bargh(1999), van Baaren, Holland, Kawakami와 van Knippenberg(2004)이 주장한 모방의 친밀감, 라포 형성 효과가 그동안 주로 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입증되어 왔던데 비해, 성인-아동 관계에서 새로이 그 효과를 살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친권위적 태도가 강한 9~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할 때

성인의 권위 속성 변화가 이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 흔히 인정과 권위의 원천으로 인식되기 쉬운 성인들이 아동의 친사회적/친권위적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신중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Aron, A., Aron, E. N., & Smollan,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6-612.
- Ashton-James, C., van Baaren, R. B., Chartrand, T.L., & Decety, J. (2007). Mimicry and me: The impact of mimicry on self-construal. *Social Cognition*, 25(4), 518-535.
- Austin, W. (1980). Friendship and fairness: Effects of type of relationship and task performance on choice of distribution rule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6(3), 402-408.
- Billard, A. (2002). *Imitation*. In M. A. Arbib (Ed.), *Handbook of Brain Theory and Neural Networks*, MIT Press, 566-569.
- Braine, L. G., Pomerantz, E., Lorber, D. & Krantz, D. H. (1991). Conflicts with authority: Children's feelings, actions and jus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29-840.
- Bull, R. & Corran, E. (2002). Interviewing child witnesses: Past and Future. *International*

-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4(4): 315-322.
- Carter, C. A., Bottoms, B. L. & Levine, M. (1996). Linguistic and socioemotional influenc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ur*, 20(3), 335-358.
- Ceci, S. J., Ross, D. F., & Toglia, M. (1987a).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Psycholegal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6, 38-49.
- Chartrand, T. L., & Bargh, J. A. (1999). The Chameleon effect: The perception-behavior link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93 - 910.
- Decety, J., & Chaminade, T. (2003). Neural correlates of feeling sympathy. *Neuropsychologia*, 41, 127-128.
- Gallese, V. (2003). The manifold nature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quest for a common mechanism. In C. Frith, & D. Wolpert (Eds.), *The Neuroscience of Social Interaction* (pp. 159-182). Oxford University Press.
- Gelfand, D. M., & Hartmann, D. P. (1980).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and moral judgment. In R. Ault (E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216-266). Santa Monica, CA: Goodyear.
- Grusec, J. E., Kuczynski, L., Rushton, J. P., & Simutis, Z. M. (1978). Modeling, direct instruction and attributions: Effects on altruism. *Developmental Psychology*, 14, 51-57.
- Hampson, R. B. (1981). Helping behavior in children: Addressing the interaction of a person-situation model. *Developmental Review*, 1, 93-112.
- Israel, A. C., & Brown, M. S. (1979). Effects of directiveness of instructions and surveillance on the production and persistence of children's don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7, 250-261.
- Killen, M., & Uzgiris, I. C. (1981). Imitation of actions with objects: The role of social mean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8, 219-229.
- Kohlberg, K.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347-414). Chicago: Rand McNally.
- Kohlberg, L. (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2.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an Francisco: Harper & Row.
- La France, M., & Broadbent, M. (1976). Group rapport: Posture sharing as a nonverbal indicator. *Group and Organization Studies*, 1, 328 - 333
- Lakin, J., & Chartrand, T. L. (2003). Using nonconscious behavioral mimicry to create affiliation and rapport. *Psychological Science*, 14, 334-339.
- Laupa, M. (1991). Children's reasoning about three authority attributes: Adult status,

- knowledge, and social pos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21-329.
- Laupa, M. & Turiel, E. (1993). Children's concepts of authority and social con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 191-197.
- Loftus, E., & Palmer, J. (1974). Reconstruction of automobile destruction: An examp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3, 585-589.
- Macrae, C. N., & Johnston, L. (1998). Help, I need somebody: Automatic action and inaction. *Social Cognition*, 16, 400-417.
- McGillicuddy-De Lisi, A. V., Watkins, C., & Vinchur, A. J. (1994). The effect of relationship on children'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5, 1694-1700.
- Meltzoff, A. N. (1990). Foundations for developing a concept of self: The role of imitation in relating self to other and the value of social mirroring, social modeling, and self practice in infancy. In D. Cicchetti, & M. Beeghly (Eds.), *The self in transition: Infancy to childhood* (pp. 139-16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tzoff, A. N., & Decety, J. (2003) What imitation tells us about social cognition: a rapprochement between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cognitive science. In C. Frith, & D. Wolpert (Eds.), *The Neuroscience of Social Interaction* (pp. 109-130). Oxford University Press.
- Memon, A. & Vartoukian, R. (1996). The effects of repeated questioning on young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7, 403-415.
- Monston, S. (1990). How children interpret and respond to questions: Situational sources of suggestibility in eyewitness interview. *Social Behavior*, 5, 155-167.
- Moore, B. S., Underwood, B., & Rosenhan, D. L. (1973). Affect and Altruism, *Developmental Psychology*, 8, 99-104.
- Mussen, P., & Eisenberg-Berg, N. (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Freeman, San Francisco.
- Nadel, J. (1986). *Imitation et communication entrejeunes enfants*. Paris: PUF. (2000). Very young infants detection of imit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CIS 2000, Brighton.
- Nadel, J., & Butterworth, G. (1999). *Imitation in Infan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Nadel, J., Revel, A., Andry, P., & Gaussier, P. (2004). Towards communication: first imitations in infants, children with autism and robots. *Interaction Studies*, 5(1), 45-75.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Peterson, L. (1980). Developmental changes in verbal and behavioral sensitivity to cues of social norm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51, 830-838.
- Peterson, L., Hartmann, D. P., & Gelfand, D. M. (1977).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effects of dependency and reciprocity cues in children's moral judgments and donation

- rates. *Child Development*, 48, 1331-1339.
- Ricci, C., Pacifico, J., & Katz, S. (1997). Effect of interview setting and questioning techniques on children's eyewitness memory and identification accuracy.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Rigby, K. (1987). 'Faking good' with self-reported pro-authority attitudes and behaviours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445-447.
- Rosenhan, D. L., Underwood, B., & Moore, B. S. (1974). Affect Moderates Self-Gratification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46-552.
- Rudy, L., & Goodman, G. S. (1991). Effects of participation on children's reports: Implications for children's testimon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27-538.
- Russon, A. E., & Waite, B. E. (1991). Patterns of dominance and imitation in an infant peer group. *Ethology and Sociobiology*, 13, 55-73.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5th ed.). Brooks/Cole.
- Staub, E., & Sherk, L. (1970). Need for Approval, Children's Sharing Behavior and Reciprocity in Sharing. *Child Development*, 41, 243-252.
- Strayer, F. (1981). The organization and coordination of asymmetrical relations among children: A biological view of social power. In M. Watts (Ed.), *Ethological and physiological approaches. New Directions for methodology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No. 7, pp. 33-50). San Francisco: Jossey-Bass.
- Subbotsky, E. V. (1994). The formation of independent behaviour in preschoolers: an experimental analysis of conformity and indepen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2), 1994, 289-310.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Uzgiris, I. C. (1981). Two functions of imitation during infanc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 1-12.
- Uzgiris, I. C. (1999). *Imitation as activity: Its developmental aspect. Imitation in infancy* (pp. 209-2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Baaren, R. B., Holland, R. W., Steenaert, B., & van Knippenberg, A. (2003). Mimicry for money: Behavioral consequences of imi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393-398.
- van Baaren, R. B., Holland, R. W., Kawakami, K., & van Knippenberg, A. (2004). Mimicry and pro-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15, 71-74.
- Walters, J. R., Seyfarth, R. M. (1987). Conflict and cooperation. In Smuts, B. B., Cheney, D. L., Seyfarth, R. M., Wrangham, R. W., Struhsaker, T. T. (eds), *Primate Societ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306-317.

Zarbatany, L., Hartmann, D. P., & Gelfand, D. M. (1985). Why does children's generosity increase with age: susceptibility to experimenter influence or altruism? *Child development*, 56, 746-756.

Zentall, T. & Akins, C. (2001). Imitation in animals: Evidence, function and mechanisms.

In R. G. Cook (Ed.), *Avian visual cognition* [On-line].

Available:<http://www.pigeon.psy.tufts.edu/avc/zentall>

1차 원고 접수: 2008. 4.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5. 13

최종게재결정: 2008. 5. 14

Imitation and Its Social Effects: How Does the Adult Mimicker Influence Children's Helping Behavior

Jin-hee Park Hee-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imitation not only increases liking and rapport between the interactants, but also enhances demonstrator's pro-social helping behavior toward the mimicker and other people in general. This study has been done to test social and emotional effects of imitation on the child participants. To adapt previous studies which were originally for adults, children of ages from 9 to 11 were chosen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peated testing using the modified IOS scale before and after the trial showed the scores of the children in the no-mimicry condition increased more after the trials compared to those of the children in the mimicry condition. Second, the children in the mimicry condition retrieved the pen dropped by the experimenter more than the children in the no-mimicry condition. Third, the children in the no-mimicry condition donated more to the needy than the children in the mimicry condition did. The results above show that age plays a role in the effect mimicry has on people. Although mimicry has an effect of triggering feelings of liking and establishing of a rapport with another person in adults leading to increased likelihood of charity towards the mimicker, in children, who are still in development phase of conventional morality, the high/low authority experimenter variable which is affected by imitation may play a role in the outcome.

Keyword: involuntary · automatic mimicry, rapport, pro-social/pro-authority, helping behavior, social pressure